

성인들의 영성, 자기애적 성격, 행복감에 관한 연구

이진아 / 조현아(경기대학교 정신보건사회복지)

1. 연구목적

행복은 반드시 좋은 결과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자기 모습을 사랑하고 만족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러한 행복의 원리를 신념과 태도와 행동 속에 구체적으로 옮겨 실천하는 사람은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건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영적인 안녕이 전인적인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감과 행복과 관련된 긍정적인 자기애적 성격과 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Howden(1992)이 개발하고 오복자 등(2001)이 번안한 한국판 영성 측정 도구, Emmons(1981)가 개발하고 김윤주(1991)가 번안한 자기애적 성격 측정 도구, Hills와 Argle(2001)이 개발하고 최요원(2002)이 번안한 한국판 옥스포드 행복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성 측정도구는 Cronbach $\alpha=.79$ 였고, 자기애적 성격 측정 도구는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85$ 로 나타났다. 행복 측정 도구는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81$ 이었다. 연구 분석은 SPSS Win 10.1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사항에 따른 개념간 평균 비교를 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성, 자기애적 성격,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3. 주요 결과

일반적 사항에 따른 개념간 평균 비교를 살펴보면, 영성은 성별($t=5.16, p<.001$), 종교에 따라서($F=12.13, p<.001$)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행복감은 성별($t=2.48, p<.05$),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F=3.95$, $p<.01$)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념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성이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격이 높게 나타났고($r=.210$, $p<.001$), 자기애적 성격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r=.396$, $p<.001$), 행복감이 높을수록 영성은 높게 나타났다($r=.525$, $p<.001$). 바꾸어 말하면 영성과 자기애적 성격과 행복감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영성, 자기애적 성격, 행복감을 살펴본 결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최근에 자기애적 성격과 영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실행되고 있지만, 행복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행복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